
2018. 12. 3(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한국법제연구원-제윤경 의원실, ‘소비자기본법의 사후평가와 개정방향’
연합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소비자기본법의 사후평가와 개정방향’을 주제로 ‘2018 입법평가 제3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윤경 의원실, 한국소비자법학회, 서울 지방변호사회, (사)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법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소비자법의 정확한 진단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소비자권익포럼 이은영 이사장 등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소비자안전사회 구축’과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정책’을 세부주제로 1,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규범 과잉 방지를 목적으로 입법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법평가이론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8. 12. 7(금) 서울플라자호텔 루비홀
한국법제연구원, 한·중·일 전문가 초청 통일법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동북아 경제협력과 경제특구법제’를 주제로 통일법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법 현황과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남북 경제협력 추진과 통일경제특구법 시행에 대비하는 법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등 한·중·일 통일법제-북한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북한 경제특구법제의 변천 및 최근 동향’을 주제로 법무법인 지평 김광길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이어 ‘북한경제특구지역 토지처리를 위한 입법방향’을 주제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욱 교수가 발표했다. 2부는 중국 정법대학 김철 교수의 ‘중국의 경제특구법제’ 발표와 한국법제연구원 박훈민 부연구위원의 ‘우리의 통일경제특구법제 제정 필요성과 방향’ 발표가 있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법제도 수요를 발굴하여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18. 12. 12(수) JW메리어트 호텔
한국법제연구원 2018년도 연구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18년도 연구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18년도에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연구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성과보고회를 마련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임직원 및 학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성과발표회는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체 연구 분야에 대한 성과 소개와 전문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행정법제연구실, 사회문화법제연구실, 재정경제법제연구실 연구사업 운영 실적과 성과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국내 규제법령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합리적인 규제 대안을 공유하였다.

제2부에서는 입법평가, 헌정제도, 통일법제, 글로벌법제전략, 기후변화, 법제교류지원, 법령번역 분야의 주요 연구 성과를 설명했으며 남북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법제도 수요 발굴에 따른 연구결과도 이 세션에서 소개했다. 이어 발표된 연구 성과 내용으로 토대로 전문가의 피드백이 진행됐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향후에도 기관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마련하여 연구의 정책 반영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8. 12. 13(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안’ 주제로 입법정책포럼서 강연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안’을 주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제33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법 제정 38년 만에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법제의 준비를 통한 제도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 법제 준비를 위해서는 전문적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포럼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18. 12. 18(화)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아트리움
한국법제연구원, 전 세계 법령번역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법령번역의 포용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주제로 법령번역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유럽연합 번역총국 및 아시아, 영미유럽 주요국의 법령번역 품질향상 경험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한 번역의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클라우스 미어 코이켄(Klaus Meyer Koeken) 유럽위원회 번역 A국 국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총 4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 클라우스 미어 코이켄 유럽위원회 번역 A국 국장은 '법령번역의 품질 향상과 영문스타일 가이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1, 2세션에서는 법령번역과 경험 공유: 아시아와 영미·유럽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어 '법령번역과 시번역의 현황과 전망', '법령번역과 포용성 향상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이 진행됐으며 미국, 일본, 대만, 포르투갈 등에서 방문한 법령번역 전문가들과 국내 유관기관인 KDI, KOICA와 학계 관계자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1,900여건의 우리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웹과 모바일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는 외국 투자 기관 및 재외공관 관계자, 일반국민 등 연간 22만명이 이용한다.



2019. 1. 16(수) 국무조정실
한국법제연구원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6일(수) 국무조정실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우수연구자 및 기관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으며, 한국법제연구원은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한국법제연구원 송영선 전문연구원은 국가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효율적 기관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 도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국책연구기관의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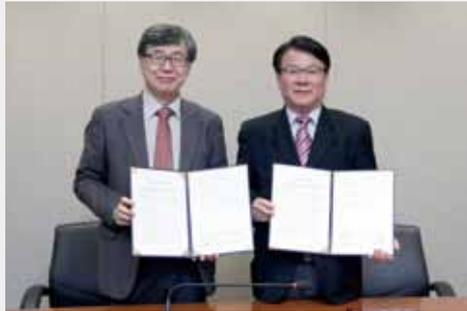
2019. 1. 29(화)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9일(화)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과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KOSSDA는 연구기관들과 개인 연구자들이 산출하는 조사 자료, 통계자료, 기록문서 등의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DB로 구축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김형건 국제협력실장 및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이재열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결식에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체결을 계기로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민법의식조사 등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중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들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에 제공할 예정이며, 자료원은 해당 자료를 가공한 후 상세 메타데이터와 함께 해당 자료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9. 2. 20(수) 네팔입법위원회 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네팔 입법위원회 MOU체결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네팔 입법위원회(Nepal Law Commission)는 2월 20일 네팔 입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네팔 입법위원회는 네팔 정부의 입법 제개정 작업을 지원하고, 네팔 정부의 법제 개혁과 법령개정에 관한 권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17년과 2018년에 네팔 입법위원회 관계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바 있으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이번 협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연수프로그램 협력 ▲입법관련 자료 및 출판물 공유 ▲인적 교류 등을 활발히 실시할 예정이다.

2019. 1. 18(금)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
**박정훈 교수 '국가배상법제의 개혁' 주제로
 입법정책포럼서 발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국가배상법제의 개혁 - 국가책임과 공무원(경찰관) 개인책임의 구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제3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제10대 경찰위원장인 박정훈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제8기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모교인 서울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박정훈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가배상법제가 1951년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입법과 판례에 큰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고,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토대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발제에서 "위법한 행정결정의 경우 그 위법성이 바로 공무원실적이 때문에 국가는 담당공무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적 손해 앞의 평등 및 사회연대에 비추어 타당하다"며 "반면 공무원은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할 정도의 개인적 과오를 범한 경우에만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공무원 과오는 징계책임 또는 형사책임으로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